

중국 길림성(吉林省)에 거주하는 조선족(朝鮮族)의 주거 및 주생활*

- 재한(在韓) 조선족 이주 노동자의 주거 계획을 위한 기초 연구 -

An Analysis of Housing and Domestic Living of ChoSun-Tribe in China*

- Focusing on Housing Plans for Immigrant Workers in Korea -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소비자주거 전공

연구교수 이 영 심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 전공

교 수 최 정 신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Life Science, Consumer & housing studies, Catholic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 Lee, Young Shim

Division of Consumer & housing studies, Faculty of Human Ecology, Catholic University

Professor : Choi, Jung Shin

◀ 목 차 ▶

I. 서론

II. 연구 범위와 방법

III. 결과해석 및 논의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getting information for making a plan of immigrant workers in Korea. As a first step to suggest plans for immigrant workers who have multi-cultural background, this study investigated to the domestic living of Koreans(ChoSun-Tribe) of Gillim province in China. For this, usage of domestic space questionnaire were used.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1. The most popular LDK type was the one which kitchen was separated from living room and dining room. Most of them thought that kitchen and living room have to be separated. 2. There was no plan for laundry room specially and most houses have a washing machine in the bathroom. Most houses didn't install a bathtub in the bathroom and they didn't think that it was indispensable. 3. It was estimated that they used a living room as a multi-purpose room for the family but used a master bedroom for its own purpose. 4. They used a table and chair for meals normally but they took meals sitting on the floor with a large

Corresponding Author : Young-Shim Lee,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Life Science, Consumer & housing studies, Catholic University 43-1
Yokgok2-dong, Wonmi-gu, Bucheon city, 420-743, Korea

Tel: +82-2-2164-4836 Fax: +82-2-2164-4301 E-mail: yslee99@hanafos.com

본 논문은 2007년도 학술진흥재단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연구과제번호: C00074)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family or guest. 5. All of them took off the shoes inside of the house for hygienic reason. There was no plan for the space to take on-off shoes in most houses and they just put the mat on the floor for it. 6. Modified Ondol system which use water pipe under the floor was popular in apartment while most detached houses had traditional Ondol system. The satisfaction about Ondol system was very high compared to other ones and also Ondol system was the most desirable one for ChoSun-Tribe.

주제어(Key Words): 다문화적 배경(multi-cultural background), 이주 노동자(immigrant workers), 조선족(ChoSun-Tribe), 주거 공간(domestic space), 기거 양식(seating style)

I. 서론

최근 들어 국가 간의 상품과 서비스, 자본의 이동은 세계화의 추세와 함께 가속화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 등의 발전은 각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의 개혁과 개방을 활발하게 함은 물론 국가 간의 노동력의 이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2004)는 보호자 수용소와 난민을 제외하고 자기 나라가 아닌 장소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정의되는 세계적인 '이주 노동자'는 8천 6백만 명에 달하며 향후 수십 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2006년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인 모두 80만 4천여 명이며 이 중 이주노동자는 공식 통계로는 35만 명이나 미등록 노동자까지 더하면 50만 명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서울신문, 2006. 6). 또한 정부는 2007년에 10만 5천명의 이주 노동자를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며 이들의 취업 업종도 종전의 12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 확대하였음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력이 도입된 것은 1980년대 이후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에서 인력난을 겪게 되면서부터이다.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위험하고 힘든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력이 감소하여 1980년대 말에는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관련 직에서의 인력 부족이 극심하였고 그 결과 실업률이 높은 동남아시아 등지의 노동 인구가 유입되었다. 또한 1988년의 올림픽 개최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외부에 알림으로써 외국인 노동력의 국내 유입을 촉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노동력 유입국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어 갈 가능성이 있음을 예고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와 관련한 연구는 경제와 법률관련 분야 및 인문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즉, 이들의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역할과 효과 그리고 이주노동자 관련법과 제도에 관한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이들의 노동 환경

및 사회적인 적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거와 관련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미미한 편으로 이들의 주거 지역 및 주거 형태 등에 대한 조사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고성열, 200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원은숙, 2001; 천정훈, 2005).

주거는 정서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주 노동자들에게 있어 주거는 타지 생활에서의 적응 그리고 만족 정도와 많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점에서 주거는 이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의 주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이를 통하여 보다 실제적인 주거 계획 방안이 모색되고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의 연구이며 연구 대상은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들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조선족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주 노동자로 일하는 조선족은 2000년에 7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된 바 있으며 2004년 현재 17만여 명 그리고 2007년 현재는 40만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설동훈, 2002; 출입국관리국, 2004).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현지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주거 공간 사용방식과 주거 내에서의 생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조선족의 주거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다. 조선족의 주거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재한(在韓) 조선족을 위한 주거 계획 시 이들 본래의 주거 문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와 앞으로 행할 예정인 재한(在韓) 조선족 이주 노동자의 주거에 관한 비교 분석은 이들을 위한 주거 계획 요소들을 더욱 명료하게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재한(在韓)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에게 적합한 주택 계획을 제안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이들을 위한 주거 계획을 할 때 실질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의 이주 노동자 정책 수립 시에도 주거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대상 지역의 선정

본 연구는 중국 동북 지역의 길림성(吉林省)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하여 2007년 1월 13일-1월 23일 사이에 현장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인구는 동북 3성인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 길림성에 가장 많은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다(老年世界, 2003). 또한 길림성에는 조선족 외에 한족(漢族), 만족(滿族), 몽고족(蒙古族), 회족(回族), 석백족(錫伯族) 등 44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즉, 길림성은 중국에서 조선족의 생활 및 주거 문화를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인 동시에 다양한 소수민족 간의 교류를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점에서 길림성을 조선족의 고유한 주거 문화 그리고 다른 민족과의 교류를 통한 주거 문화의 변화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이라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길림성을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조사 방법은 문화인류학(Ethnography)에 근원을 둔 문화기술학적 연구방법(Ethnographic research)과 질문지법을 병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길림성 영길현(永吉縣)에 거주하는 조선족 12 가정과 길림 시내(吉林省市內)에 거주하는 조선족 4 가정을 방문하여 관찰하고 주부와 면담하였으며 각 주택에 대한 사진 촬영과 실측을 하였다. 면담 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 정도로 질문지의 항목에 기초하여 질문하였고 면담자의 부연 설명 혹은 추가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록하였다. 면담 내용은 크게 주 공간 사용면과 주생활의 고찰 면이었다. 주 공간 사용면은 첫째, 각 주택의 거실, 식사실, 부엌의 유형에 대한 평가와 만족정도, 둘째, 기타 공간의 계획과 개조 사항에 대한 평가와 요구로 구성하였다. 주생활 면은 첫째, 공간별 활동 내용, 둘째, 활동별 입식과 좌식 정도 셋째, 각 실별 바닥재 구성 넷째, 난방 방식에 대한 평가와 요구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만족 정도는 아주 만족한다(5점)-아주 불만족하다(1점)의 5단계로 분류하여 평균 점수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 일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전체의 것으로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밝힌다.

3. 연구대상 지역과 조선족의 특성

중국의 동북(東北) 지구의 중부에 위치한 길림성은 남쪽의 요녕성, 북쪽의 흑룡강성과 함께 동북 3성(省)을 구성하고 있으며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북한, 러시아와 접경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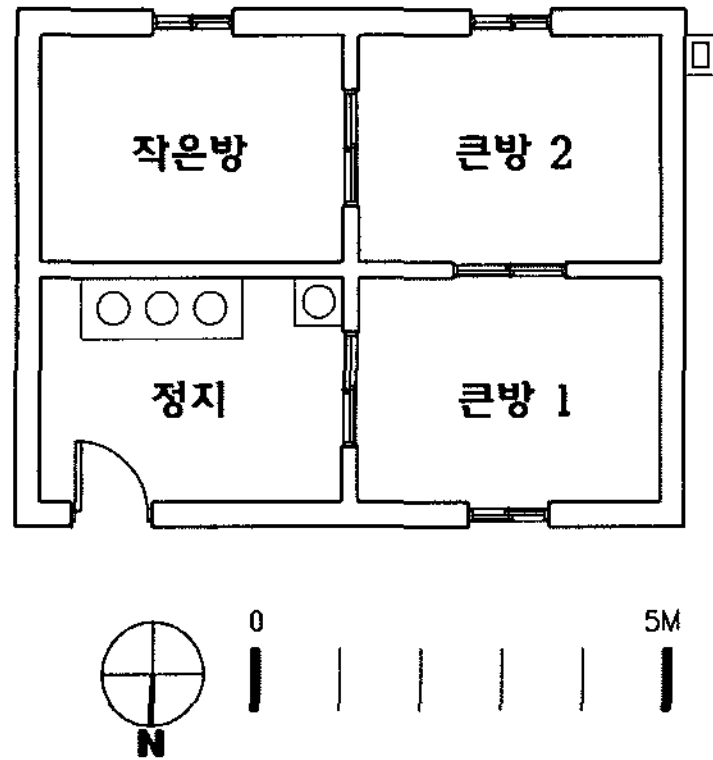
있다(그림 1). 길림성의 총 면적은 18.74평방킬로미터로 총 인구 27,085만 명 중 한족(漢族)이 24,816.3만 명(90.97%)이고 나머지는 조선족, 만족, 회족, 몽고족 등의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6대 산림자원 지역에 속하는 길림성은 자원이 풍부하고 토질이 비옥하여 옥수수, 대두, 벼 등을 주로 생산하는 중국 최대의 상품작물 생산기지이다. 뚜렷한 4계절이 있는 길림성은 여름철은 덥고 습윤하고 겨울철은 한랭 건조한 대륙성 기후로서 1월의 최저 온도가 영하 21.9도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조선족은 18세기 초-19세기 말 사이에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의 한반도에서 몇 차례의 대규모 이주를 거쳐 중국의 동북 지구에 형성된 민족 공동체로서 한글을 사용하며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민족에 비하여 문화, 교육, 위생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신문, 잡지, 방송 관련 활동도 활발하다. 길림성에 거주하는 조선족 인구는 2000년 현재 192만 384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老年世界, 2003). 연구대상 지역인 영길현(永吉縣)의 인구는 약 40만 명이며 이 중 조선족은 약 3만 명이다. 영길현을 포함하는 길림시(吉林省市)의 인구는 300만여 명이며 이 중 길림 시내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약 1만 명 정도이다. 조선족은 대다수가 농사에 종사하는데 시장경제가 도입된 이후 물가 상승과 일자리의 부족으로 생활비와 교육비를 벌기 위해 땅을 버리고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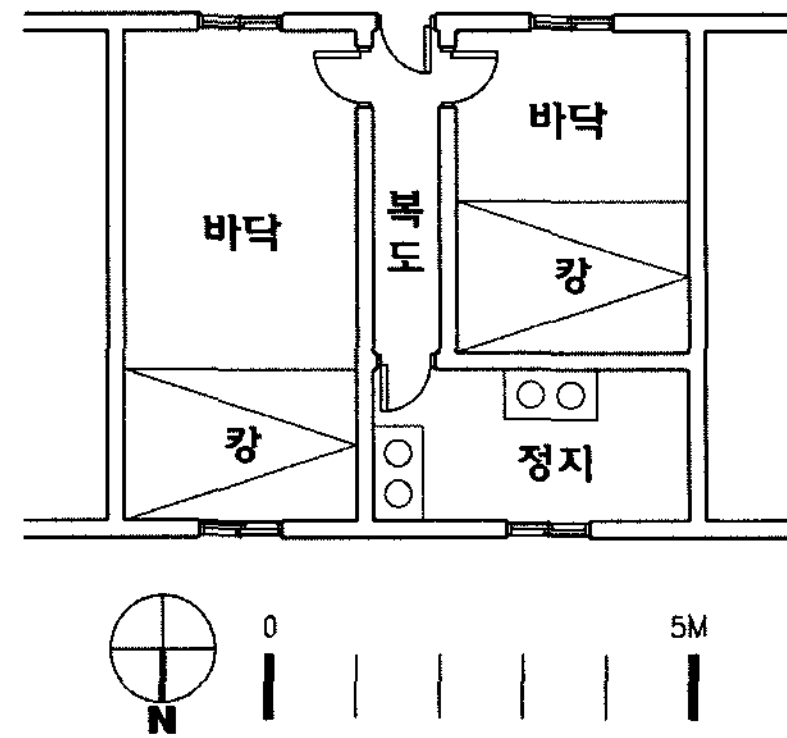
연구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대부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경제개방 이전에는 직장에서 주택 자금의 일부 혹은 대부분을 지원하거나 주택 자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개방과 함께 이러한 제도가 없어졌으며 따라서 현재 젊은 세대에게 주택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다.



(그림 1) 중국 길림성의 위치와 연구대상 지역



〈그림 2〉 길림성 쌍하진 대야천에 건축한 조선족 초가집 추정도 (1946년 건축)



〈그림 3〉 길림성 쌍하진 대역산에 건축한 중국식 평집(42평) 추정도(1940년대 건축)

Ⅲ. 결과해석 및 논의

1. 길림성 주거의 시대별 변천과 주생활의 변화

본 내용은 조사대상 지역인 길림성의 조선족 주거의 변천을 고찰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와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중국 길림성의 주택 유형은 크게 평집(단독주택)과 층집(아파트)으로 분류된다.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시대별 특징과 유형별 특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1) 평집(단독주택)

조사대상 지역인 중국 길림성의 주택 형태는 전통적으로 평집(단독주택)으로서 조선족을 비롯한 모든 민족이 평집에 거주하였다. 길림성 지역의 평집은 대부분 일자형(一字形)인데 이는 겨울이 매우 길고 추운 이 지역의 특성 상 주택 배치를 남향으로 하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의 구조재는 대부분 벽돌이며 겨울의 추위를 고려하여 외벽은 약 50센티미터 정도로 매우 두꺼운 것이 특징이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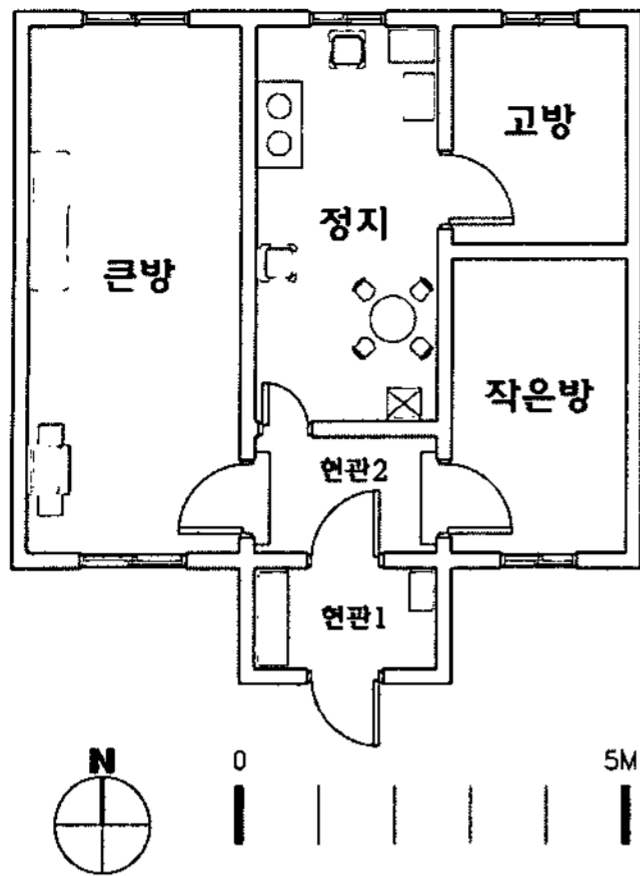
평집에는 대부분 중국식 온돌인 칸(쪽구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조선족은 이를 조선식 전통 구들로 바꾸기도 하였다. 조선족의 전통 구들과 중국식 구들인 칸은 바닥을 데운다는 방식은 같으나 동일 면적에서도 신발 착용의 장소가 다르며 취침이 가능한 구들방의 면적에서 차이가 있다. 즉, 조선족의 전통 구들은 방에 올라서기 전에 신발을 벗도록 되어 있는 반면 중국식 칸은 신발을 신고 방으로 들어가 칸에 올라서기 전에 신발을 벗도록 되어 있다.

조사대상 지역에서 조선족은 전통 주거인 초가집에 살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2〉는 1946년에 길림성 쌍하진 대야천에 건축한 초가집으로 흙벽과 짚풀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평면은 우리나라의 평안도, 함경도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전(田)자 형으로 정지에서 신발을 벗고 구들방으로 올라서도록 되어 있다. 정지에는 2개의 부뚜막이 있어 난방과 취사를 하였고 3개의 구들방은 미서기 문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중국에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중국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기 이전에는 회사 단위로 주택을 공급하였으며 따라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주택을 소유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예전에 모두 회사에서 공급한 평집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평집의 크기는 36평, 42평, 54평 등으로 다양했는데 가족 수에 따라 평형을 다르게 배급하였고 직위가 높은 경우에는 평수가 크고 마당이 넓은 집을 받기도 하였다. 평집에 조선식 구들이 있기도 하였는데 이는 칸이었던 것을 조선족들이 개조한 것으로서 원래의 칸의 높이를 낮추고 나머지 바닥을 높이는 조선식 구들의 개조는 보통 하루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림 3〉은 42평형의 평집으로 정지(부엌) 한 칸, 칸으로 된 방 두 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지에는 불을 때는 아궁이와 부뚜막이 각각 두 개씩 있었다. 부엌 뒤에는 대개 채마밭을 두었고 과일 나무를 심었다. 앞마당에는 오이, 가지, 고추, 시금치, 배추, 감자 등을 심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벽돌로 포장하기도 하였다. 방 한 칸은 3, 4명이 함께 잘 수 있는 크기로서 보통 어른 방과 아이들 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고 방과 부엌의 바닥재는 모두 타일이었다. 겨울에는 석탄 그리고 여름에는 프로판 가스로 난방과 조리를 하였다. 화장실은 대개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였으며 뒷마당에 개인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국가 관장의 위생대에서 쳐 가거나 혹은 유기비료를 만들어 채마밭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경제 발전과 함께 평집의 건축 재료 역시 흙과 벗짚 등에서 기와와 벽돌 등으로 변화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석탄 보일러



〈그림 4〉 길림성 영길현 구전진에 위치한 조선족 평집 (1984년 건축)

- * 현관 1 : 겨울철 추운 바람의 실내 유입을 막는 기능이 있음.
- * 현관 2 : 두 방 출입 시 신발을 신고 벗는 장소의 기능 가짐.

를 사용하여 온수바닥 난방을 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 아파트에 온수바닥 난방이 보급되고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면서 평집에서 아파트로 이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2) 층집(아파트)

길림성에 층집이 건설된 것은 1920년-1930년대 사이에 길림시(市) 외곽에 2, 3층의 건물이 건설된 것이 처음이었다. 영길현은 1960년대 말에 관공서와 백화점을 층집으로 건축하였고 1970년대 말부터 아파트가 직장 단위로 배급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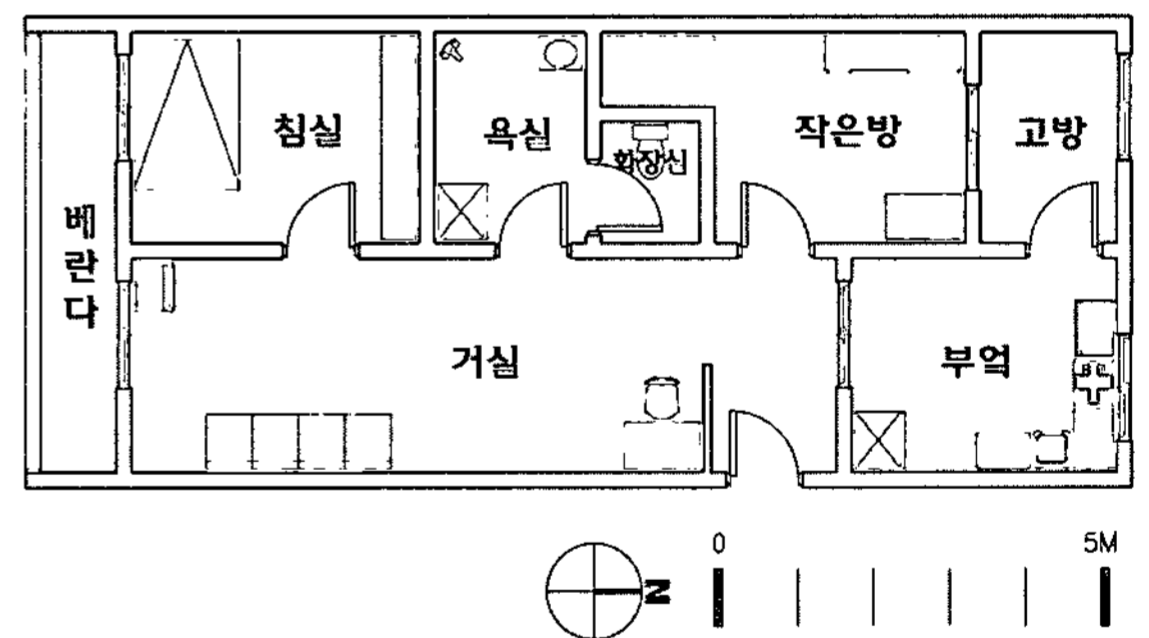
1990년대부터 아파트의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해 현재는 아파트가 일반적인 주택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다른 소수 민족들에 비하여 경제적인 능력과 생활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조선족은 영길현의 경우 전체의 75% 정도가 층집에 거

주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건설한 층집의 60% 정도는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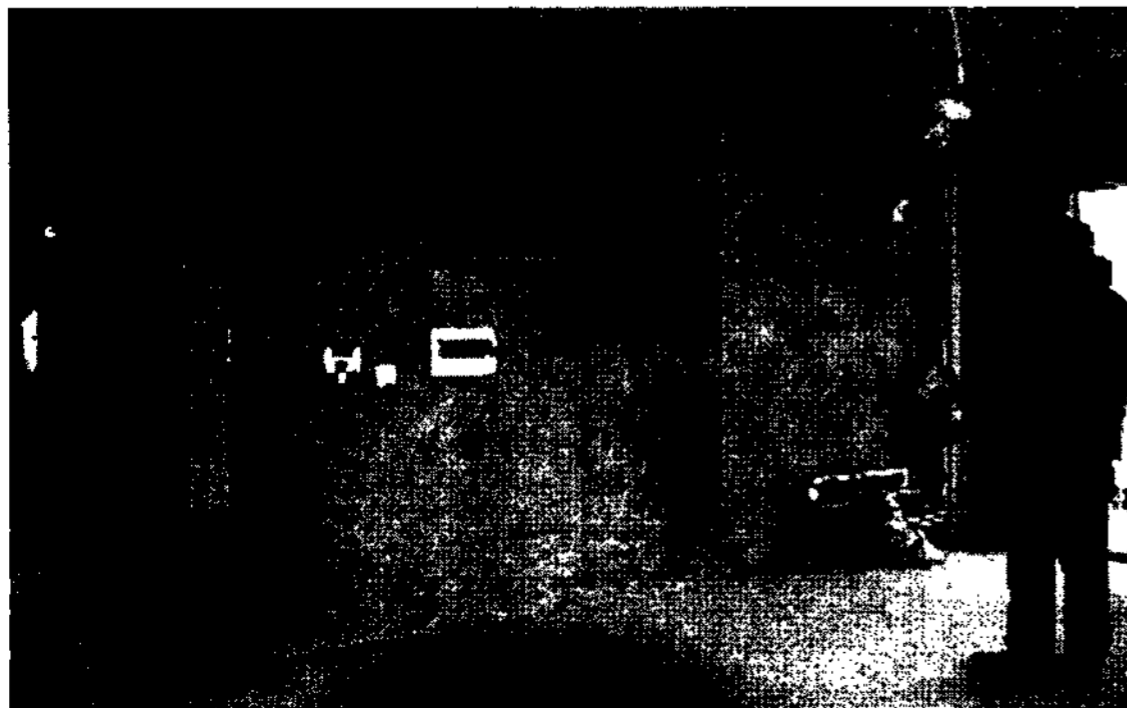
아파트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이며 외벽은 벽돌인데 길고 추운 겨울에 대비하여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외벽이 매우 두꺼우며 거의 남향 배치이다. 영길현의 아파트는 대부분 7층 이내인데 이는 8층부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기의 아파트는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고 중국식 칸으로 구성되었으나 시설의 발전과 함께 난방 방식은 라디에타 난방을 거쳐 최근에는 온수 바닥난방이 보급되고 있다(그림 5). 취사에는 프로판 가스 혹은 전기 레인지를 사용하는데 현재 길림 시내에는 부분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점차 그 지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파트의 외관에서의 변화는 겨울철 추위 때문에 창문을 이중으로 하였던 것이 한 겹의 페어 글라스(pair glass)로 바뀐 것이다. 또한 앞 베란다를 창문을 넓히고 아래 벽의 높이를 낮추어 전망을 좋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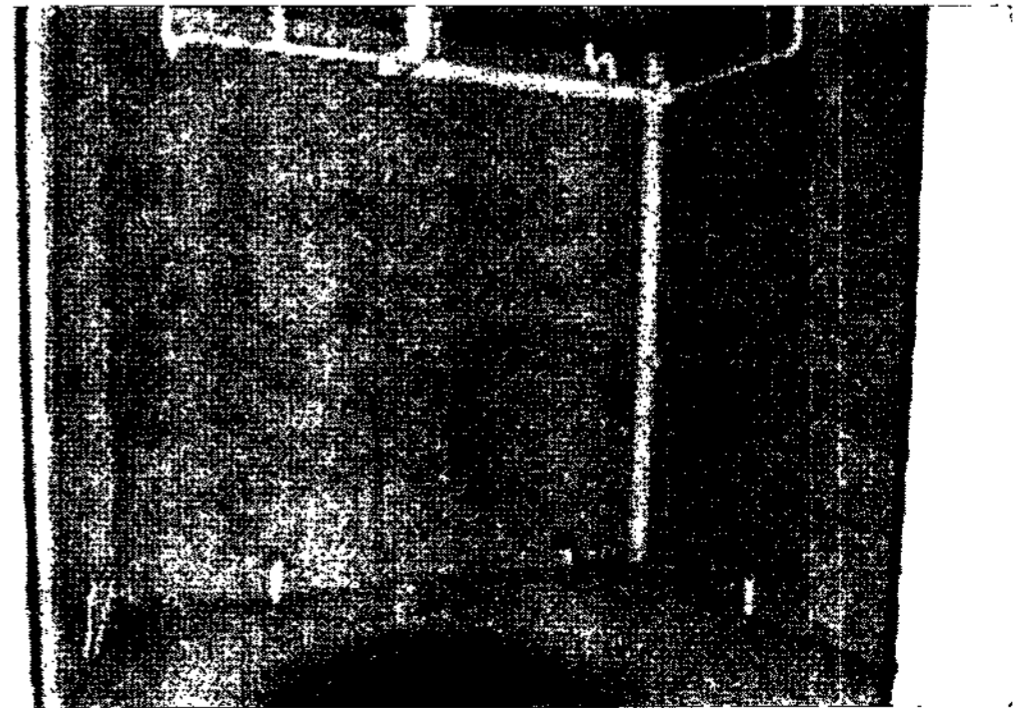
중국의 아파트에는 미서기 문을 많이 계획하는데 이는 문을 여닫는데 필요한 공간을 절약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엌 뿐 아니라 욕실에도 미서기 문을 사용한 예를 간혹 볼 수 있다.



〈그림 5〉 영길현 구전진에 위치한 84평형 중국 아파트(2001년 건축)



〈사진 1〉 길림성 길림 시내에서 분양된 새 아파트의 거실 모습



〈사진 2〉 길림 시내에서 분양된 새 아파트의 욕실 모습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주부 이름	주부 나이	가족 구성	가족 수	주부 학력	남편 직업	월 소득 (위안)	주택 형태	침실 수	주택소유 여부	건축경과 했수	주택 면적(평)
M씨댁	69	조부모 +손자	3	중졸	사업	3,000	아파트	2	소유	2년	93
G씨댁	68	주부	1	중졸	.	800	아파트	3	소유	2년	130
K씨댁	60	조부 +손자	2	고졸	공무원 은퇴	1,000	아파트	2	소유	6년	84
L씨댁	55	부부	2	고졸	공무원	3,900	아파트	3	소유	13년	95
P씨댁	62	조부모 +손녀	3	중졸	은퇴	1,300	아파트	2	소유	16년	87
J씨댁	67	부부	2	대졸	공무원 은퇴	2,000	아파트	3	소유	9년	121
I씨댁	51	부부	2	고졸	사업	2,000	아파트	3	소유	13년	95
Y씨댁	60	부부	2	중졸	공무원 은퇴	3,000	아파트	2	소유	2년	110
G씨댁	58	부부	2	고졸	사업	2,000	아파트	2	소유	7년	151
O씨댁	62	조부모 +손녀	3	고졸	은퇴	1,000	아파트	2	소유	3년	103
K씨댁	43	조부모+주부+아들	4	고졸	.	2,000	아파트	2	소유	12년	60
J씨댁	66	조부모 + 손녀	3	초졸	건설업	1,500	다세대주택	3	소유	17년	115
K씨댁	66	부부	2	초졸	농업	1,200	단독주택	2	소유	23년	116
J씨댁	70	조부모+손주 2	4	초졸	은퇴	800	단독주택	1	소유	17년	42
K씨댁	73	부부	2	고졸	은퇴	1,500	단독주택	2	소유	5년	80
N씨댁	58	부부	2	초졸	농업	1,600	단독주택	4	소유	6년	130

* 조사대상자의 이름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영문 약자로 표기하였음.

* 중국의 1평은 1m×1m로 표시한다.

대지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 마당의 한 쪽에 개인 창고를 계획한다. 보통 5평-7평정도 되는 개인 창고에는 각종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보관하는데 조선족들은 이곳에 깊이 2-3미터 정도의 움을 파고 김치독을 파 묻기도 한다. 길림 시내의 경우 아파트 단지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운동 시설이나 커뮤니티 센터 등의 서비스 시설 또한 강화되고 있고 경비실을 따로 계획하는 등 보안면에서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 계획 면에서의 특징은 아파트 공급 시에 내장 마감 및 설비 등을 제외한 채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입주자는 부엌과 욕실 설비, 창과 문을 비롯한 모든 마감을 스스로 해야 한다. 이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목적은 입주자의 다양한 경제적인 수준과 취향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내부 꾸밈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비용은 평균 4-5만 위안(480-600만원)이다(사진 1) (사진 2). 조사대상 지역의 주택은 대부분 벽지를 바르지 않고 페인트칠을 하는데 이는 겨울 추위로 인한 결로현상으로 벽지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현관 가까이나 거실에 큰 거울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실내가 넓어 보이는 효과 이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반사시킨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보통 그림이나 가구 등의 장식이 많지 않고 대부분 붙박이장을 직접 짜서 사용하였다.

2.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인 주부의 연령 분포는 60세-69세 미만이 9사례, 50-59세 미만이 4사례로 60대가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61.8세였다. 평균 가족 수는 2.4명으로 부부만으로 구성된 경우가 8사례로 가장 많았고 조부모와 손자로 구성된 경우가 7사례였다. 주부의 학력은 조사대상자의 절반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었고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졸업이 각각 4사례씩으로 대부분이 주부였다. 조사대상자의 소득정도는 월 1,000위안-1,500위안인 경우가 6사례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600위안-2,000위안(5사례), 3,000위안 이상(3사례), 1,000위안 이하(2사례)의 순이었다. 평균 월 소득은 1,788위안으로서 영길현 거주 조선족의 평균 월수입이 1,000-1,500위안임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중간 이상의 소득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 가정 중 5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부부가 정년으로 은퇴한 경우였다. 남편이 아직 일을 하고 있는 가정 중 4사례는 개인 사업에 종사하였으며 1사례는 공무원직에 종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주택형태는 대부분 아파트로 단독주택이 4사례, 다세대 주택이 1사례 있었으며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주택의 침실 수는 2개인 경우가 9사례로 가장 많았고 3개인 경우가 5사례였으며 4개인 경우와 1개인 경우가 각각 1사례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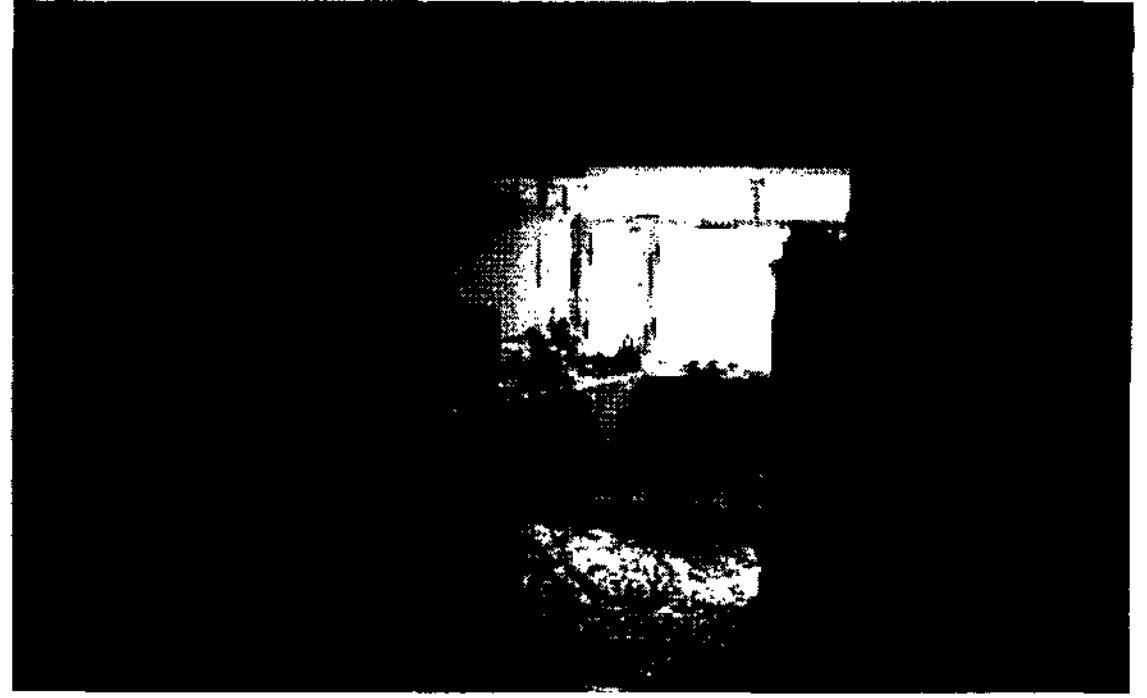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평균 건축연수는 다세대 주택을 포함한 아파트가 평균 6.7년이었으며 단독주택은 평균 12.8년이 었다. 단독주택 4사례 중 3사례가 조사대상자 스스로 주택을 건축한 경우였으며 아파트는 모두 중국의 건설회사에서 건축하였다.

3. 주 공간 사용

1) 거실·식사실·부엌의 연결 유형 및 평가

조사대상 주택의 거실, 식사실, 부엌의 연결 유형은 <표 2>와 같이 분류되었다. 가장 많았던 유형은 부엌이 거실과 식사실에서 분리되어 있는 유형(K+L·D;43.8%)으로서 이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만족 정도는 평균 3.9점이었다 <그림 6>. 조사대상 지역에서 나타난 이러한 평면유형은 우리나라 아파트의 경우 부엌, 식사실이 함께 있고 거실이 분리된 유형(L+D·K형)이 가장 보편적인 연결 유형으로 보고 된 결과와 차이가 있다(김수현, 1999, 배정민, 정유선, 윤정숙, 2001).

부엌과 거실의 통합에 대해서는 현재 부엌, 식사실, 거실이 통합되어 있는 1 사례<사진 3>를 제외하고는 모든 조사대상자들이 부엌과 거실의 분리를 선호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우리는 볶음 채(반찬)가 많아서 안 된다”, “손님이 있으면 냄새 나서 안 된다”, “기름이 분산되어 집안이 더러워진다” 등으로 부엌을 분리시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이는 간접적으로 그들의 음식 문화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조사대상자들의 식생활에 대하여 관찰한 결과 이들은 중국 음식과 한국 음식을 모두 선호하였고 일상적으로 양쪽의 음식을 고루 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양념을 사용하고 특히 기름으로 볶는 조리가 빈번하여 이들의 음식 문화는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사진 4>. 우리나라의 아파트 평면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 전



<사진 3> 베란다의 싱크대를 거실로 연장한 아파트의 부엌(O씨 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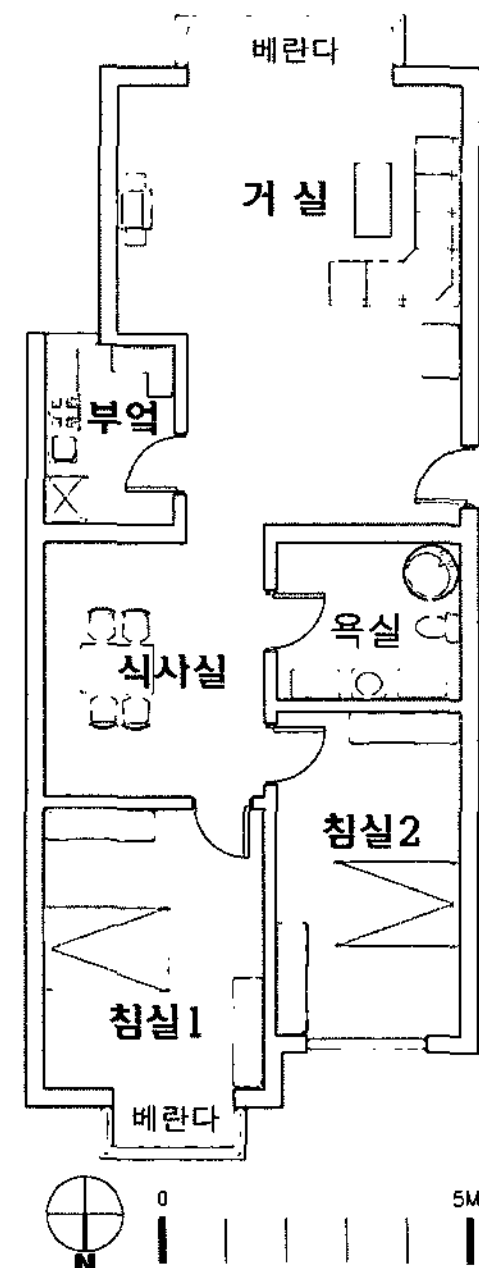
<사진 4> 부엌과 식사실을 겸한 평집의 부엌(L씨 덕)

<표 2> 거실, 식사실, 부엌의 연결유형 구성

N=16

유형	f(%)
L·D·K	1(6.2)
K+L·D	7(43.8)
L+K·D	5(31.2)
L+D+K	3(18.8)
계	16(100)

- L·D·K; 거실, 식사실, 부엌이 한 공간에 통합된 형태
- K+L·D; 거실과 식사실이 함께있고 부엌이 독립된 형태
- L+K·D; 부엌과 식사실이 함께있고 거실이 독립된 형태
- L+D+K; 거실, 식사실, 부엌이 각각 독립된 형태



<그림 6> 길림 시내의 부엌이 분리된 유형의 아파트 (152평 : 2001년 건축 : G씨 덕)

통의 음식문화 즉, 냄새가 강한 저장, 발효 음식 등이 식당 공간의 개방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서구와 차별화되는 주거 형태를 만든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김수진, 1999)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관찰된 음식 문화와 평면 유형이 가지고 있는 관련성을 언급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층 연구가 요망되었다.

2) 부엌에 대한 평가 및 요구

조사대상자들이 정지 혹은 주방이라고 칭하는 부엌에 대한 만족 정도는 평균 3.3점 정도로 보통이었다. 부엌 면적이 작은 것에 불만족한 경우가 전체의 37.5%(6사례)였다. 조사대상 지역의 아파트의 경우 부엌은 앞 혹은 뒤쪽 베란다에 일정한 규모로 계획하는 것이 보통이다. 조사대상 지역에서 부엌에 많은 면적을 할애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인들의 조리 방식 그리고 식사형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인들은 음식을 조리하여 한꺼번에 상에 차리기 보다는 한 가지씩 차례로 조리해서 내 가는 형식을 사용하는 점 그리고 보통 가정에서 그릇 하나에 밥과 채(반찬)를 담아 간편하게 식사하는 형식을 사용하는 점 등을 부엌의 협소함과 관련지을 수 있겠다. 본 연구의 많은 조사대상자들이 “조선 사람은 정지가 커야한다” 고 언급한 것은 조리과 식사 관습에 따라 부엌 계획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자들이 부엌에 관하여 요구한 사항은 저장 공간에 관한 것이었다. 조사대상 지역의 아파트는 전통적으로 부엌 옆에 일정 면적의 저장 공간을 계획해 왔다. 이곳은 부엌에서 사용하는 식품 및 음식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서 조사대상 지역의 기후특성 상 겨울에는 이 곳이 식품 및 음식을 차게 저장하는 공간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에 건설한 아파트는 대개 이 공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다. 조사대상 가정에서 부엌에 바닥 난방이 되어 있고 별도의 저장 공간이 없는 6사례 중 1사례 이외에는 “짚지를 둘 데가 없다”, “찬 공간이 필요하다” 등으로 이 공간이 필요함을 표현하였다. 이외의 요구는 부엌에서의 편리한 작업을 위하여 작업대가 더 넓을 것 그리고 수납장이 위, 아래로 충분하게 구비되어 많은 물건을 수납할 수 있을 것 등이었다. 조사대상 가정 중 취사연료로 도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2사례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프로판 가스와 전기 기구를 사용하고 있었고 모두 빠른 시일 내에 도시 가스를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3) 욕실에 대한 평가 및 요구

조사대상 주택의 욕실 형태는 욕실이 1개인 경우는 욕조 없이 세면대, 변기, 샤워시설로 구성된 경우가 6사례로 가장 많았으며 욕실이 2개인 경우는 변기가 따로 독립되어있고 세면대와 샤워시설로 구성된 경우가 2사례였다. 욕조가 있는

경우는 전체에서 2사례에 불과했는데 욕조가 없는 14사례 중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았던 경우가 11사례였고 나머지 3사례는 있던 욕조를 제거한 경우였다. 욕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면적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그 사용 정도가 낮기 때문이었다. 대부분 전기온수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집에서 목욕할 수 있는 온수와 난방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공중탕이 (5 위안이면 가니까) 더 싸다”, “(2 위안을) 더 주면 때밀이까지 해 줘서 나이 많은 이는 더 좋다” 등으로 공중탕 사용이 합리적임을 표현하였다.

조사대상 주택은 모두 세탁실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 세탁기를 소유하고 있는 14사례 중 13사례가 욕실에 세탁기를 두고 사용하고 있었으며 단독주택 4사례 중 정지(부엌)에 세탁기를 둔 경우가 1사례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의 86.7%가 욕실에서 세숫대야를 사용하여 손세탁을 하였으며 7사례(43.8%)는 부엌에서 빨래 삶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은 세탁실의 필요 정도에 대하여 현재 욕실에서의 세탁이면 충분하다고 답하여 별도의 세탁실에 대한 요구 정도는 낮게 평가되었다. 즉, 조사대상 지역의 욕실은 세탁의 기능을 겸한 공간으로서 욕조보다 세탁기와 손빨래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되며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현재의 욕실 면적이 적정하다고 답한 결과는 욕실의 기능보다는 세면실과 세탁실로서의 기능을 중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조사대상 주택 중 3사례가 난방과 환기, 습기 제거의 기능이 있는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태양열로 데운 온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4사례 있었다. 특히 조사대상자들의 태양열 사용에 대한 요구 정도가 높아 앞으로 조사대상 지역의 욕실 환경은 점차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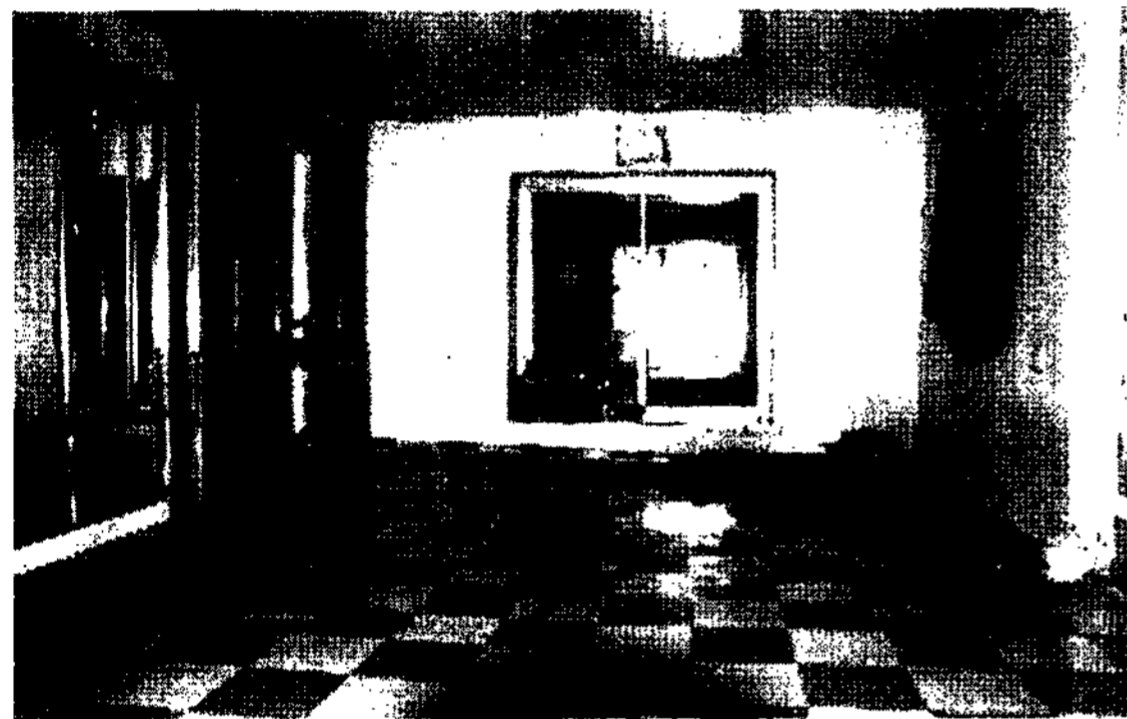
4) 주택 개조의 내용과 요구

조사대상 주택 중 개조를 한 경우는 아파트에서 2사례, 단독주택에서 1사례가 있었다. 먼저, 아파트의 경우는 난방방식을 변경한 경우 1사례와 부엌을 개조한 경우가 1사례 있었다. 난방방식의 개조는 건축한 지 12년 된 아파트의 난방을 라디에타 방식에서 온수바닥 난방으로 개조한 경우였다. 그리고 부엌의 개조는 부엌을 넓히기 위해서 부엌에서 뒤 베란다로 나가는 여닫이문을 제거한 후 부엌을 확장하여 원래의 부엌을 식사실로 그리고 베란다는 조리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였다(사진 5).

단독주택의 개조는 한족(漢族)이 거주하던 주택에서 부엌과 구들방을 개조한 경우였다. 부엌의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부엌 뒤편에 있던 창고에 부뚜막을 앉히고 수도시설을 갖추어 부엌으로 확장하였으며 그 옆에는 욕실을 새로 계획하였다. 또한 칸이었던 큰 방을 조선식 구들로 만들어 그 넓이를 두 배로 하였으며 부엌과 큰방 사이에는 창을 내어 이곳으로



〈사진 5〉 베란다를 부엌으로 개조하고 기존의 부엌 공간을 식사실로 한 아파트 사례(P씨 맥)



〈사진 6〉 큰방과 부엌을 확장하고 두 공간을 창으로 연결한 평집 사례(K씨 맥)

음식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다(사진 6).

이상의 3사례 모두 생활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 주택을 개조한 경우로 이는 계획된 평면과 실제 사용 사이에서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엌관련 개조는 조사대상자들의 부엌 면적에 대한 요구 정도가 높았던 결과와 관계있는 것으로서 이는 조사대상 지역의 부엌 계획에 사용자의 요구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족은 평집의 구들방인 큰 방을 취침은 물론 식사, 가족 단란, 손님접대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큰 방에서 밥 먹고 잠자고 잔치할 때 놓고 싹(모두) 다 한다” 는 말은 이를 표현하는데 이러한 사용 방식은 한족의 Kang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주생활

1) 주 공간 별 주생활 내용

조사대상자들의 각 공간 별 주생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표 3). 단독주택은 구들방인 큰방이 침실과 거실의 기능을 모두 하므로 본 항목은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거실에서 하는 주요 활동은 가족 단란과 손님접대

〈표 3〉 주 공간 별 주생활 내용

N=12

주생활내용	주거공간	거실	부엌 (식사실)	부부 침실	자녀 침실
취침		2		10	
손님취침		10			2
가족단란		12			
가족식사		7	5		
대가족식사		11	1		
자녀공부					2
다림질		8			2
재봉		3		5	1
독서		8		3	
화장		1		5	
야채다듬기			12		
제사		3			
친한손님접대		12			
공식손님접대		11	1		
TV시청		11		1	
가계부쓰기		6			2

*해당 주생활을 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였음.

등이었다. 또한 거실에서는 대가족의 식사와 손님 취침이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자의 반이 다림질을 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안방과 거실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된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김미희, 1991; 윤정숙, 1990; 윤재웅, 2000; 최목화, 1991). 부엌에서의 주요 활동은 조리과 관련한 작업이었고 식탁이 부엌 공간에 있는 경우 부엌에서 가족식사를 하고 있었다. 부부침실에서의 주요 활동은 부부취침이었으며 이 외에 재봉과 화장, 독서 등의 개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주부의 평균 연령이 61.8세로 자녀들이 모두 성장, 독립하여 침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방수에 여유가 있어 그 만큼 침실로서의 기능을 지킬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자녀 방에서는 주로 손님취침 혹은 다림질 등의 가사작업을 하고 있었다.

각 실의 면적에 대한 평가에서는 많은 조사대상자들이 부엌 면적이 대체적으로 작다고 평가하였으며 넓은 부엌에 대한 요구 정도가 높았다. 조사대상 지역에서 부엌의 면적이 충분하게 확보될 경우 이는 조리작업 자체를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현재 거실에서 하는 가족대화나 손님접대 등의 활동을 일부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가사 작업의 분담까지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생활 별 입식과 좌식의 정도

조사대상자들이 행하는 입식과 좌식 정도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표 4).

가족취침은 조사대상자의 56.3%(9사례)가 침대를 사용하고 있었고 좌식과 입식을 겸용하는 경우가 25.0%(4사례)였다. 그러나 손님취침은 좌식이 56.3%(9사례), 절충식이 43.8%(7사례)로서 손님이 많은 경우 거실에서 좌식으로 취침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가사작업 중 다림질은 좌식의 경향이 강했는데 60.0%(9사례)가 바닥에 담요 등을 깔고 좌식으로 하고 있었다. 바느질, 옷 손질, 재봉 등의 작업 역시 거실이나 침실 등에서 좌식으로 하였고 손빨래 역시 욕실 바닥에서 좌식으로 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들 모두가 집에서 김치를 담가 먹고 있었는데 김치 담그는 행위는 좌식과 입식을 겸용하였다. 배추 씻기는 66.7%(10사례)가 부엌 싱크대에 서서 하였고 버무리기 작업은 부엌 바닥에 앉아서 하는 경우가 53.3%(8사례), 싱크대에 서서 하는 경우가 46.7%(7사례)로 유사하였다. 야채 다듬기는 93.8%(15사례)가 부엌 작업대에 서서 하였다.

화장은 서서 하는 경우가 72.7%(8사례)로 주로 침실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족의 TV시청은 주로 거실에서 하였는데 소파와 바닥을 겸용하는 경우가 68.8%(11사례), 바닥에 앉는 경우가 18.8%(3사례) 그리고 소파를 사용하는 경우가 12.5%(2사례)로 휴식시간을 겸한 TV시청은 소파와 바닥에서 편한 자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독서와 가계부 정리는 거실에서 소파를 사용하여 입식으로 하고 있었다. 손님접대는 친한 손님과 공식적인 손님인 경우가 뚜렷하게 구분되었는데 이웃이나 친구인 경우 43.8%(7사례)가 좌식으로 그리고 37.5%(6사례)가 절충식인 반면 공식적인 손님 접대는 대부분 소파를 사용하여 입식으로 하고 있었다. 평소의 가족식사와 손님식사는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평소의 가족식사는 50.0%(8사례)가 입식으로 하는 반면 대가족 혹은 손님과의 식사는 73.3%(11사례)가 거실에서 좌식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식탁보다는 좌식 상차림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사진 7) (사진 8).

3) 공간 별 바닥재의 구성

조사대상 주택의 바닥재 구성은 <표 5>와 같다. 먼저 거실의 경우 전체 나무인 경우가 62.5%(10사례)였고 비닐 장판인 경우가 25.0%(4사례)였다. 최근 들어 아파트에 온수바닥 난방이 일반화되면서 나무 바닥재 역시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나무 바닥재는 좌식을 병행하는 조사대상자들의 생활양식에 부합되므로 그 만족 정도가 높는데 나무가 건강에 좋다는 인식과 함께 심미적인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점차 선호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사진 9). 조사대상 주택 중 거실

<표 4> 주생활 내용별 입식과 좌식 정도

N=16

주생활내용	기거양식	좌 식	입 식	겸 용
취침(가족)		3	9	4
취침(손님)		9		7
화 장		3	8	
재 봉		8	4	1
TV시청		3	2	11
독 서		4	10	
가계부정리		2	8	1
손님접대(친구)		7	3	6
손님접대(공식)		3	11	2
가족식사		4	8	4
대가족(손님) 식사		11	2	2
다림질		9	5	1
손빨래		13	2	
김치담그기(배추씻기)		5	10	
김치담그기(버무리기)		8	7	
야채다듬기		1	15	

*해당 주생활을 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였음.



<사진 7> 아파트 거실에서의 손님접대(P씨 덕)



<사진 8> 아파트 거실에서의 좌식과 입식의 병행(L씨 덕)

〈표 5〉 공간별 바닥재의 구성 N=16

공간별 바닥재료	거실 f(%)	침실 f(%)	부엌 f(%)	식사공간 f(%)	욕실 f(%)
전체 나무	7(43.7)	12(75.0)		6(37.5)	
나무+카펫	2(12.5)				
나무+장판	1(6.3)				
타일	2(12.5)		12(75.0)	6(37.5)	15(100.0)
타일+장판			1(6.3)		
비닐장판	4(25.0)	4(25.0)		3(18.7)	
대리석			1(6.3)		
시멘트			2(12.4)	1(6.3)	
계	16(100)	16(100)	16(100)	16(100)	15(100)

*단독주택 1사례는 욕실이 없었음.



〈사진 9〉 거실과 방의 나무 바닥재(G씨 맥)



〈사진 10〉 거실의 타일 바닥재(I씨 맥)

바닥재가 타일인 경우가 12.5%(2사례)였는데 2사례 모두 1994년에 건축한 아파트로서 라디에타로 난방하는 방식이었다(사진 10). 거실 바닥재를 타일로 하는 것은 한족(漢族) 전통의 난방인 캉(쪽구들)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한 관습에 의거한 것으로서 주택 관리 면에서의 편리함 역시 고려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온수바닥 난방은 조선족 뿐 아니라 한

족에게도 그 호응 정도가 높으며 이와 함께 나무 바닥재 역시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거실의 바닥재가 비닐장판인 경우는 단독주택에서 거실 겸 침실의 역할을 하는 큰방의 경우였다. 침실 바닥재 역시 대부분이 나무(75.0%)였으며 단독주택의 구들방은 비닐장판(25.0%)이었다. 아파트의 경우 거실 바닥재가 타일인 경우에도 침실은 나무 바닥재였는데 이는 취침을 고려한 계획으로 사료되었다. 침실 바닥재가 나무인 경우는 입식과 좌식 취침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만족 정도가 높았다. 나무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거주자 역시 가장 선호하는 바닥재로 보고한 바 있다(권오정, 전계원, 1999).

부엌의 바닥재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특성 상 닦아내기 쉬운 타일인 경우가 81.3%(13사례)로 가장 많았으며 1사례는 타일 바닥에 비닐 장판을 깔 경우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정지(부엌)는 물이 흐르니까 나무는 안 된다”, “타일이 물 닦기 좋다” 등 물을 사용하는 공간에는 타일이 가장 적합함을 표현하였다. 식사 공간의 바닥재는 나무와 타일이 각각 37.5%(6사례)였는데 나무인 경우는 식사 공간이 거실과통합되어 있는 경우였으며 타일인 경우는 부엌에 식탁을 둔 경우였다. 욕실의 바닥재는 욕실이 없는 단독주택 1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타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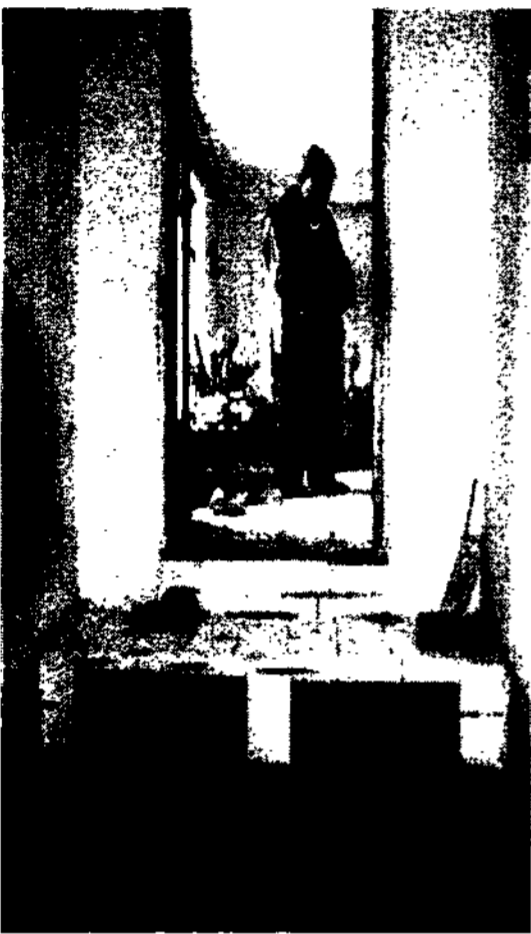
4) 실내에서의 신발 착탈과 현관 계획

조사대상자들 모두가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지역의 단독주택은 구들방으로 올라가면서 단차가 있는 곳에 신발을 벗어두고 있었으나 아파트는 대부분 신발 착탈을 위한 공간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의 유입을 막아주고 신발을 신고 벗는 장소가 되는 단차가 없어 신발 착탈은 거실의 한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사진 11) (사진 12). 조사대상자 중 1사례만이 현관문 안쪽의 일부에 대리석을 부분적으로 깔아 신발을 벗는 공간을 마련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은 “한 데(곳)에 다 벗어두지 말고 따로 해야 깨끗하다”, “파진 데가 있으면 좋겠다” 등으로 신발을 신고 벗는 공간에 대한 요구를 하였으나 일부는 “신발장이면 된다”, “습관 되어 괜찮다” 등으로 지금의 생활에 적응하였음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신발의 수납은 대개 현관 옆에 신발장을 두어 사용하였는데 조사대상자의 56.3%가 스스로 신발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최근에 건설하는 아파트는 현관 옆에 붙박이 신발장을 계획하기도 하는데 대개의 경우 소형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자들은 앞 혹은 뒤 베란다에 신발을 수납하였고 때로는 현관 문 밖에 신발장을 두고 사용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의 기후 특성 상 겨울의 찬바람을 막기 위해 현관과 거실 사이에 두 짝 미서기 문을 설치한 경우가 1사례 있었으며 현관문을 이중으로 만든 경우가 2사례 있었다. 신발 착탈 공

〈표 6〉 난방방식

N=16

난방유형	f(%)
온수 바닥 난방	6(37.5%)
라디에타 난방	5(31.2%)
덕티드 히팅(ducted heating)	1(6.3%)
전통 구들	4(25.0%)
계	16(100)



〈사진 11〉 신발 벗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평집 현관(L씨 닻)



〈사진 12〉 신발 벗는 공간이 없는 아파트 현관(G씨 닻)

간이 따로 없는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현관에 대한 만족 정도를 평가한 결과 만족 정도는 평균 3.0점으로 앞으로 위생 면에서 그리고 편리 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5) 난방방식의 종류와 평가

조사대상 주택의 난방방식은 〈표 6〉과 같다. 바닥에서 온수를 데워 난방하는 개량 구들방식이 6사례(37.5%)로 가장 많았고 역시 온수를 사용하여 라디에타(radiator)를 통해 난방하는 방식이 5사례(31.2%)였다. 이 외에 아파트의 경우 온풍으로 난방 하는 덕티드 히팅(ducted heating)이 1사례 있었으며 단독주택은 모두 전통 구들이었다.

조사대상 지역의 전통적인 난방방식은 단독주택의 경우 아궁이에 불을 때서 구들을 덥히는 온돌 난방이었고 아파트는 라디에타를 통한 난방이 일반적이었다. 조사대상 지역에 온수바닥 난방이 처음으로 도입된 때는 1980년대 후반으로서 처음에는 단독주택에 도입, 적용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의 아파트에 온수바닥 난방이 처음 시도된 때는 2000년으로서

최근에 건설하는 아파트는 대부분 이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난방방식의 만족 정도는 전통 구들이 4.2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온수바닥 난방은 3.7점, 라디에타 난방은 3.0점이었다. 아파트의 온수바닥 난방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점은 부엌까지 난방이 되어 음식 보관이 차게 안 되는 점 그리고 바닥 마감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이었다. 아파트 거주자의 난방에 대한 공통적인 불만족은 난방이 중앙에서 공급되는 점이었다. 중앙공급식 난방이 제공되는 기간은 11월 초- 3월 말까지인데 조사대상 지역인 동북 지역은 겨울이 길고 추워서 공급 기간의 앞, 뒤 시기에도 사실상 난방이 필요하다.

단독주택 거주자들이 “우리는 아파트하고 이 집하고 안 바꾼다”, “나이 많은 사람은 보일러 안주면 추워서 안 된다”는 말에서 이 시기의 난방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이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기간도 주로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난방방식은 바닥을 데우는 온돌이었는데 조사대상 지역에서 온수바닥 난방방식의 아파트가 점차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현상은 온수바닥 난방이 이미 보편적인 난방 방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전통 구들을 사용하는 단독주택 4사례 중 조사대상자 스스로가 구들을 놓은 경우가 1사례였으며 나머지 3사례는 한족(漢族)이 놓은 경우였다.

IV. 요약 및 결론

1. 조사대상 주택의 거실, 식사실, 부엌의 연결 유형은 부엌이 거실과 식사실에서 분리되어 있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들은 부엌과 거실의 분리를 선호하였는데 이는 조리 시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 지역의 부엌은 대체로 그 규모가 작게 평가되었는데 이 역시 해당 지역의 음식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사료되며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한 심층 연구가 요구되었다. 음식 문화가 포함된 주거 문화에 대한 한족(漢族)과 조선족과의 비교 연구는 동일 문화권 내에서의 차이를 보여줄 것이며 조사대상 지역에서 보다 다양한 주택 계획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조리, 식사 공간의 의미와 기능 그리고 타 공간과의 연결에 대한 연구가 행해질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각기 다른 문화권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함은 물론 주거계획 면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다(多)문화권 사회를 위한 보편적인 주택 계획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2. 조사대상 주택은 세탁실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지 않았고 욕실이 세탁 공간의 기능을 겸하고 있었다. 세탁기를 두기 위해 욕조를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

었으며 일부 조사대상자들은 욕조를 스스로 제거하기도 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에서 욕실이 세탁 공간을 겸하는 것은 현재의 주거 환경과 사용자의 생활양식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사료된다. 조사대상 지역은 동절기의 추위로 베란다에 세탁기를 두고 물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공중목욕탕의 이용이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욕실의 난방과 온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환경 조건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은 현재 욕실의 면적과 사용 방법이 적절하다고 평가함으로써 세탁실을 겸하고 있는 욕실 계획이 현재 조사대상 지역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나 한편으로 욕실의 조명 그리고 온수사용 방식이 기능면에서 점차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요구 정도 또한 높아 앞으로 욕실의 기능 면에서의 변화가 예상된다.

3. 조사대상자들이 거실에서 하는 중심 활동은 가족 단란과 손님접대 등이었다. 즉, 거실은 가족 단란 뿐 아니라 대가족 혹은 많은 손님을 접대하는 식사 장소로 그리고 손님의 취침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반 수 정도가 다림질 등의 가사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였다. 실 별 기능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서양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안방과 거실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 본 연구 결과 역시 유사하였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부엌이 더 넓기를 요구하였는데 부엌의 면적이 넓어질 경우 가족 단란 혹은 손님접대 등의 활동 일부가 부엌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사작업의 분담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부부침실에서 주요 활동은 부부 취침과 주부의 개인 활동으로 비교적 부부침실의 독립성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조사대상 주부의 연령대가 높아 자녀들이 대부분 독립하여 공간 활용 면에서 보다 자유롭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이 거실을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점 그리고 부엌 면적에 대한 요구 정도가 높은 점 등은 특정한 민족의 주거 문화를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겠다. 앞으로 이에 대한 심층 분석 그리고 타 민족의 경우와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주거 문화에 대한 전통성과 지속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조사대상자들의 주생활 행위는 많은 부분이 입식이었으나 좌식이인 부분도 적지 않았다. 즉, 손님취침 시 바닥에 요 깔기, 다림질, 재봉, 손빨래, 김치 버무리는 작업,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의 접대, 손님식사 등을 좌식으로 하고 있었으며 가족의 휴식시간은 좌식과 입식을 겸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 주택에서 손님취침, 손님과의 식사, 대가족의 식사를 좌식으로 그리고 가족휴식을 좌식

과 입식의 겸용으로 하는 것은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좌식의 친밀함이나 편안함과도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일반적으로 특정 민족의 관습이 가지고 있는 지속성 면에서 보았을 때 조사대상자들의 좌식 생활은 앞으로도 일정 부분은 병행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5. 조사대상 주택의 바닥재는 거실과 침실은 나무, 부엌과 욕실은 타일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거실과 침실의 나무 바닥재는 온수바닥 난방이 보급되면서 사용되었는데 좌식을 병행하는 조사대상자들의 생활양식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그 만족 정도가 높았다. 부엌의 바닥재는 전통적으로 타일을 사용하는데 이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부엌에 온수바닥 난방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타일을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지역에서 바닥 난방은 조선족 뿐 아니라 한족에게도 그 호응 정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기존의 타일 바닥재와 라디에타 난방방식에서 온수바닥 난방과 나무 바닥재로의 변화가 입식 위주의 한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앞으로 조사대상 지역의 주택 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는 곧 다(多)문화권 내에서의 주택 계획 면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6. 조사대상자 모두가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고 있었다.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경우 신발 착탈을 위한 공간과 수납 설비가 필수적인데 단독주택은 구들방으로 올라가기 전에 신발을 신고 벗도록 되어 있으나 아파트는 대부분 이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 신발 착탈과 수납을 거실 한 쪽에서 행하는 현재 상태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들의 만족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지역의 현관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바탕으로 위생적인 면에서 그리고 생활의 편리 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7. 조사대상 주택의 난방방식은 아파트의 경우 온수바닥 난방방식이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은 모두 전통 구들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만족 정도가 가장 높았던 난방방식은 전통 구들이었으며 조사대상 지역에서 일반적인 난방방식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온수바닥 난방방식에 대한 만족 정도 역시 높았다. 조사대상 지역의 난방은 중앙공급소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일괄적으로 공급을 하므로 개인 주호에서 난방의 수급을 조절할 수 없다. 겨울이 길고 추운 조사대상 지역에서는 사실 상 공식적인 공급시기 외에도 난방이 필요하며 조사대상자들이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시기 역시 이와 관계가 있었다. 난방방식은 해당 지역의 기후 조건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체계를 갖

추어야 하는데 조사대상 지역의 경우 온수바닥 난방방식을 지속하면서 개별난방을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8. 본 연구를 통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주거 문화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앞으로 조선족을 위한 주택 계획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주택의 거실, 식사실, 부엌의 연결유형은 부엌이 거실과 식사실에서 분리된 유형이 일반적이었는데 조사대상자들 대부분이 이에 대하여 긍정적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은 부엌이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로 음식 조리 시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중국 전통의 조리 특성을 주된 이유로 들고 있어 이들이 조사대상 지역의 음식 문화에 동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음식 문화는 오랜 기간을 두고 형성되어 온 것으로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므로 주택 계획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서 평가되었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은 욕실에서 욕조의 필요 정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이는 조사대상 지역에서 겨울의 추위로 인해 욕실이 세탁실의 역할을 겸해야 하는 지역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세탁실을 별도의 공간에 계획할 수 있는 경우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이는 앞으로 재한 조선족에 대한 연구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의 주생활은 취침과 식사 등의 기본적인 주생활을 입식으로 하고 있었으나 손님취침, 이웃과 친구의 접대, 대가족과 손님과의 식사, 김치 담그기, 다림질과 재봉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좌식으로 하고 있었다. 입식 문화권에 속하는 중국에서 생활하면서도 좌식 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이들의 생활 속에서 한국의 관습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택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간주되었다. 특히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거실을 가족 단란 뿐 아니라 손님 취침과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택 내에서 거실 계획 시 그 위치 및 크기가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조사대상자들은 중국의 풍습과는 달리 실내에서 반드시 신발을 벗고 생활하고 있었고 보편적으로 신발 착탈 공간이 따로 없는 조사대상 아파트의 현관에 대한 만족 정도가 낮았다. 따라서 현관 계획 시 별도의 신발 착탈을 위한 공간이 계획되어야 한다고 보며 신발 수납을 위한 불박이장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조사대상 지역에서 새로운 변화로 볼 수 있는 항목은 난방 방식과 바닥재였다. 조사대상 아파트의 난방은 전통적으로 라디에타 난방방식이며 입식 생활에 편리한 타일 바닥재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온수바닥 난방의 보급 정도가 높아지고 있고 바닥 난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나무 바

닥재 역시 그 선호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 역시 온수바닥 난방방식과 나무 바닥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앞으로 이들을 위한 주택 계획 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주거 및 주생활을 조사하여 이들의 주거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 계획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조선족의 주거 문화는 중국 현지의 관습에 동화된 요소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의 관습으로서 지속되는 요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이들을 위한 주택 계획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주거 및 주생활에 대한 연구와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 명료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고성열(2005).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실태에 관한 연구 -경기도 안산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오정, 전계원(1999). 아파트 거실 바닥재에 대한 선호와 만족도. 한국주거학회지. 10(2), 223-234.
- 김미희, 문희정(2001). 식당 겸 부엌 전면 배치형 아파트의 공간이용행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8), 51-58.
- 김수진(1999). 주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아파트 단위평면 실내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현(1999). 아파트 단위평면의 유형별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로년세계(老年世界. 2003. 6호). 2000년 제5차 전국인구조사 자료로부터 본 조선족인구실태. 연변인민출판사, 연변조선족자치주 로년협회 합동출간. 루계 64호.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자료. 2004. 9.18.
- 배정민, 정유선, 윤정숙(2001). 민영아파트 평면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12(2), 1-12.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 시정연 2002 특별정책과제 <서울시 사회구조와 정책수요>.
- 서울신문(2006. 6. 24) '80만 외국인 근로자 송금 잡아라' 보도 자료.
- 설동훈(2002). 국내 재중동포 노동자- 재외동포인가, 외국인인가. 동향과 전망52, 200-223.
- 연변인민출판사, 연변조선족자치주로년협회 합동출간(2003.

- 6월호). 2000년 제5차 전국인구조사자료로부터 본 조선족인구실태. 6-8.
- 원은숙(2001). 외국인 노동자 복지를 위한 교회의 역할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재웅, 이미혜(2000). 도시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안방에 대한 인지성향과 공간사용방식. 한국주거학회지. 11(3), 65-73.
- 윤정숙, 이은경(1990). 한국도시주택에 있어서 주생활 양식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3), 53-65.
- 천정훈(2005). 부산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 및 적응에 관한 연구 - 방글라데시, 베트남 노동자를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목화(1991). 현대 도시의 주거생활양식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2(1), 1-12.
- ILO(2004). 'Toward a Fair Deal for Migrant Workers in the Global Economy'.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92nd Session. Report IV. Geneva : ILO.
-
- (2007년 3월 31일 접수, 2007년 6월 26일 채택)